

##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 '포스코청암 기술상' 수상

메트로신문 신하은 기자 | 2025-01-22 16:46:41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 / 손진영기자 son@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가 유기금속화합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포스코청암상 기술상을 수상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기술상에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학상에는 박문정 포스텍 화학과 교수, 교육상에 포항명도학교, 봉사상에 이철용 사단법인 캠프 대표와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원장(공동수상)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청암상은 2006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열아홉 번째를 맞이한다. 상금은 부문별로 각 2억원을 수여한다.

기술상 수상자인 김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화학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출신이다. 레이크머티리얼즈를 2010년 창업한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진해 과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순도 화합물 TMA(트리메틸알루미늄)의 국산화에 이어 유기금속화합물 제조 플랜트 설계 기술도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고부가가치 유기금속 화학소재 전문기업으로, 중동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사빅(SABIC) 및 세계 1위 정유업체인 엑손모빌(Exxon Mobil)과의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2010년 설립 이후 국내 유일의 트리메틸알루미늄(TMA)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소재, 반도체, LED, 태양광,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 기술력을 공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화학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mailto:godhe@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